

# 번역서 중의 사진·그림·도표와 저작권

## 韓勝憲

변호사·한국저작권 연구소 소장

「출판지널」 창간호를 통해서 김 선생께 이 회답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요즘은 학계나 출판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저작권에 관한 질문이 수없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저작권상황의 과도기적 증후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낯설고 까다로운 물음도 많아서 그때마다 저의 역부족을 절감하기도 합니다.

김 선생께서는 미국인이 저서의 복제를 10년간이나 소급보호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물어오셨습니다. 이 질문 역시 쉽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할 세계저작권조약(UCC)에는 소급보호의무 조항이 없으니까, 그 조약이 국내에서 시행되기 전에 외국에서 나온 책은 예컨대 그냥 번역·출판해도 됩니다. 물론 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미정부간의 「양해각서」에 따라 1977년 1월 1일 이후에 나온 미국 책의 복제는 한국정부가 행정지도로써 방지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간의 지적소유권 협상 때 한국 정부가 UCC보다 불리한 약속을 미국측에 해버린 탓입니다.

이러한 소급 보호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김 선생께서 질문하신 범위 내에서만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문장과 함께 사진 그림 도표 등이 들어있는 책을 번역 출판할 때의 문제입니다.

인듯 보기에는, 문장의 번역은 그냥 해도 되지만 사진 그림 도표 등은 복사복제에 해당되니까 권리자의 허락없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번역출판이 자유라면, 같은 책속의 사진이나 그림도 복사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 점에 관해서 걱정을 겸한 질문을 많이 받았읍니다.

저는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접근해서 해답을 얻어야 옳다고 믿습니다.

한미간에 합의했다는 미국 출판물 10년 소급복제 방지란 요컨대 한 권의 책을 (책 속의 문장과 사진을 함께) 통채로 복제·출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느 책을 번역·출판할 때에 그 원서 속의 그림이나 사진을 복사 삽입하는 것까지 막는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한 책의 수록물 중에서 문장은 자유로이 번역·출판할 수 있는 반면 그와 불가분 일체의 관계를 이루는 사진 그림 도표등의 이용이 금지된다면 문장의 번역·이용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번역권까지 소급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과학 의학 기술분야의 서적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전개해나간다면 해석의 부당성이 더욱 분명해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런 논증도 가능합니다.

즉, 마땅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출판물에 있어서도, 그 번역 출판의 허락만 받으면 따로 복제(여기서는 복사)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책 속의 그림이나 사진등을 번역서 속에 옮겨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한 책의 번역출판권 속에는 그 책의 구성요소인 문장외에 사진 그림 도표 등의 이용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입니다. (1회의 게재만을 전제로 한 정기간행물의 이용에 있어서는 예컨대 기사와 사진이 각기 저작권자를 달리하는 수가 있으나 단행본의 경우는 거의 별도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따라서 번역출판이 자유라면, 같은 책 속의 사진이나 그림도 복사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책 자체를 번역 출판하는 것이 아니고 책 속의 사진 그림 또는 도표만 분리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인용」의 범리로써 판단해야 되겠지요. 이것도 이론 전개를 하자면 간단치가 않으니 훗날로 미루겠습니다만, 개정 저작권법 제2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용의 목적과 범위라는 것은 상식선보다는 훨씬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범의 해석에 있어서는 文理해석만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목적론적인 해석, 沿革해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미 쌍방 간에 복제권 소급보호의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과 목적에 비추어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요컨대 미국측이 바라는 것은 자기네 원서 판매량의 감소를 막아달라는 것인즉 원서 자체의 복제가 아닌 한 그밖의 이용은 소급보호 약속의 범위 밖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김 선생, 되도록 쉽게 풀이한다는 저의 뜻과는 달리 이렇게 부드럽지 못한 글이 되어 죄송합니다. 쉽게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다는 진리(?)를 통감하면서 이만 맺고자 합니다.

# 독서퍼즐

다음1,2의 답을 관계염서에 옮겨 그려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내 출판지널 독서퍼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정답을 모두 맞춘 독자 중에서 10명을 추첨하여 새로 나온 「엘리트 英韓辭典」(시사영어사판, 최신판)을 드립니다. 정가1만원)을 드립니다.



엘리트 英韓辭典 時事英語社 刊

## 1. 숨은 이름 찾기

아래 글자판에는 최근에 많이 읽히는 책의 국내의 저자(작가 시인 문필가)들의 이름이 숨어 있습니다. 아래의 책 이름을 참고하여 외국인 5명 한국인 10명의 이름을 찾아서 ○로 묶으십시오.

이름은 상하 좌우 대각선등 모든 방향으로 찾아 보아야 하고, 姓과 이름은 한 칸이 떨어져 있으므로 다른 글자가 끼여 있습니다.

국내서적-「접시꽃 당신」 「휘청거리는 오후」 「태백산맥」 「민들레의 영토」 「소설 손자병법」 「여자인 무엇인가」 「야해의 밤」 「대통령의 웃음」 「사람들의 아들」

외국서적-「코스모스」 「가시나무새들」 「제3의 물결」 「천사의 분노」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시	김	문	건	이	세	길	칼	인	헤	스	드	음
도	엘	바	러	한	조	서	러	플	토	안	빈	엘
비	티	정	맥	인	플	박	완	클	정	윌	통	학
스	우	중	성	길	정	던	비	석	우	지	해	박
래	로	기	환	시	래	취	완	드	박	옥	계	인
해	컬	윌	칼	브	드	김	진	조	클	동	이	던
지	맥	생	조	엘	모	니	르	안	래	유	바	동
환	트	러	환	동	김	내	은	정	서	스	진	인
유	린	클	길	중	어	도	서	셀	큰	유	래	소
빈	클	정	용	인	드	리	열	셀	던	비	미	셀
길	박	토	생	해	정	문	로	리	비	동	맥	던
세	정	진	맥	이	대	스	베	웨	옥	용	석	김
바	시	베	던	이	도	빈	드	성	동	건	마	셀

## 2. 글자잡기

다음에서 아래 칸의 글자를 해당 세로 줄에서 하나씩 집어 위의 빈칸에 짜넣어 가면 하나의 글이 됩니다. 위의 글은 가로 읽기로 되어있고 아래 글자들은 한번씩 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출	판											
정	화	서	중	과	련	입	개	책	든	서		
문	보	판	식	관	지	는	중	다	을	책		
위	출	를	저	다	루	함	니	모	도			
의	한	에	합	은	된	은						

출제: 김하계

● 지혜로운 엄마의 육아법

## 오른손으로 벌을주고 왼손으로 껴안아라

제럴드 E. 넬슨·스펜서 존슨 지음

엄마들에게 자녀교육을 위한 획기적인 3가지 방법, 즉 '1분 목표' 설정법과 '1분 칭찬', '1분 꾸지람' 방식을 구체적 실례를 들어 제시해 주고 있다.

○신국판 / 316면 / 값 3,300원

**선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301-6 전화 / 294-8325, 294-8326

슈바이처의 제자, 치과의사, 화가, 사상가, 르네상스인이라 별명을 가진 이 시대의 마지막 스승 프레데릭 프랑크의 생각과 그림 3권 동시 출간!

### 1. 마음의 눈 마음의 그림

### 2. 열린 눈 열린 마음

### 3.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놀라움으로 가득찬 이 세상을 죽기 전에 바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기 위해 먼저 자기 앞에 있는 만가지 사물들을 하나씩 그려보자. '얇은 나'와 '큰 나'를 깨닫는 길이며 이 세상 비밀을 알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 **아끼는 사람끼리 서로를 일깨워 줄 영원한 선물**

○각권 변형 4×6배판 값 3,300~3,500원

**선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301-6 전화 / 294-8325, 294-8326

韓國隨筆文學史 張德順

韓國上古文學論 金承璨

韓國古代歌謠 黃淇江·尹元植

한국시가울격의 이론 성기옥

古小說論 成賢慶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설성정 박태상

開化期 演劇 社會史 柳敏榮

국문학연구의 방향과 과제 조동일

歷史學入門 T. Schieder 金相泰譯

高麗武人政權研究 金塘澤

國家形成論 金光億·李鍾旭撰

圖書 새문사 서울·麻浦區 龍江河 494-80 電話 (719) 3271-3279